이차전지

Sector Issue Brief 2025. 10. 29

Check Point

- Ford 3 분기 EV 실적
- 단기 미국시장 EV 채택율 5% 전망
- EV 수익성 개선위한 비용 절감 강조

Ford 3Q25 EV 시사점

| Analyst **정경희** | khchung@ls-sec.co.kr

3분기 EV 실적

Ford는 EV 전환 격변기를 겪고 있는 미국의 글로벌 OEM으로 BEV인 Ford Model e부문에서 대규모 손실 지속, $1.4bn(OPM -79.1%) 영업손실 3분기 기록. 특이점은 GM과 달리 3분기 Model e부문 판매량이 전기 60천대 대비 감소한 50만대, Hybrid 차량이 포함된 Ford Blue의 경우 2분기 696천대 대비 소폭 증가에 그친 733천대 인도량을 기록했다는 점

참고로 3분기 EV 판매량 기준에서 추산한 Ford향 이차전지 탑재량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LGES +12%, 삼성SDI -11%, SKOn 9% 수준

단기 미국시장 EV 채택률 5%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

실적 발표에서 CEO인 James D Farley Jr.는 단기적으로 미국 EV 채택률이 5%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며, 특히 저렴한 차량의 경우 EV 도입률이 증가할 것으로 언급("In the near term, I believe EV adoption will now only be about 5% of the US Market. But this is going to grow, especially for affordable EV vehicle. We are well positioned for this with the universal EV platform which underpins digitally advanced, very spacious and appealing products that start at around $3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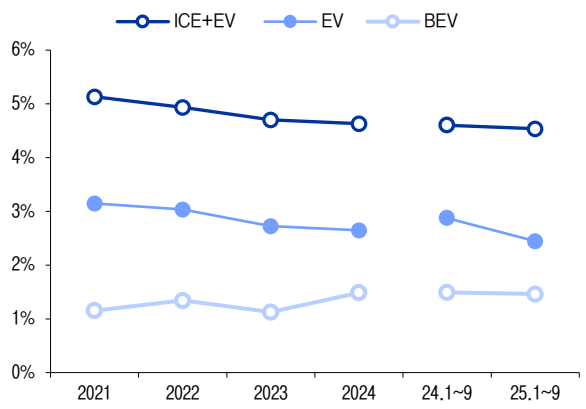
이는 미국 EV 수요의 낮은 성장률과 더불어 하이브리드, PHEV 등 저가 차량의 상대적인 선전을 의미. 순수전기차인 BEV대비 한대당 소구되는 이차전지 양이 PHEV 약 1/3, 하이브리드 약 1/60에 불과하여 저가 EV차량 비중 증가는 이차전지 수요에 부정적

부진한 EV 수익성 개선으로 비용 절감 강조, 2년전 계획대비 배터리 용량 35% 감축

Ford는 BEV 부문인 Ford Model e에서 가격 인하 및 차세대 차량에 대한 지출 증가로 EBIT $1.4bn(OPM -79.1%)로 영업손실 증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UEV 플랫폼을 포함한 차세대 차량 투자, 가격 책정, 비용 감축 강조. 이에 대한 사례로 2년전 계획했던 배터리 용량을 35% 감축한 것을 언급. ("The balance is investment in our next generation vehicles, including our UEV platform. The only practical way to improve the profitability of our Gen1 vehicles is through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Pricing new cost reductions, and improved fixed cost leverage. Given current industry trends, it is clear scaling fixed costs is a challenge for most of the industry. You can see this in the multitude of recent program cancellations and charges globally. We have been proactive. Over two years ago, we reduced our planned battery capacity by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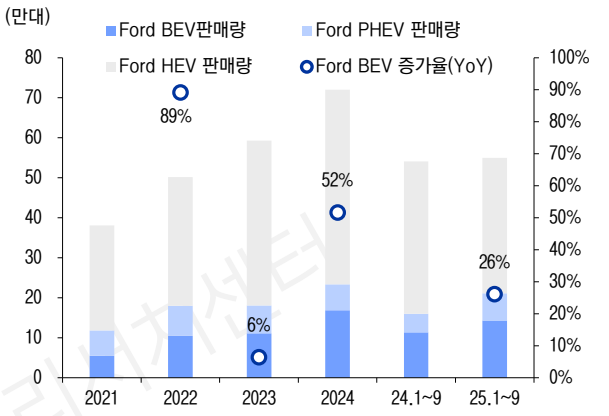
한국 이차전지 산업이 집중하는 미국 시장에서 EV 채택율 5% 전망, 주요 고객 중 한 곳인 Ford 전략에서 EV 비용 감축 및 저가형 EV 비중 확대 전략은 부정적 이슈로 볼 수 있음

그림1 Ford 글로벌 시장 EV 및 BEV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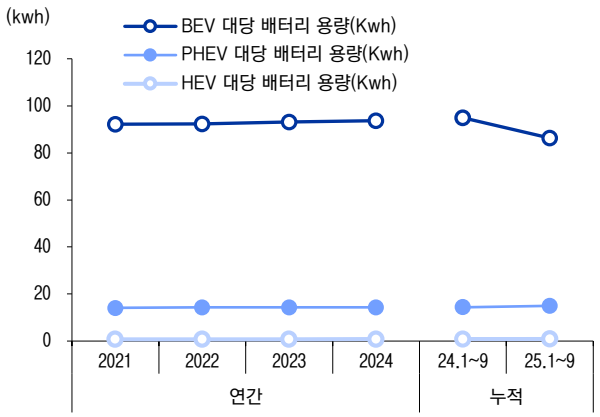
자료: Marklines,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Ford EV 타입별 판매량 추이 및 BEV 증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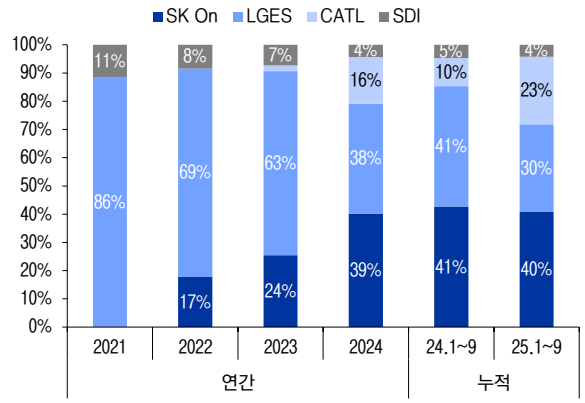
자료: Marklines,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Ford 전기차 대당 배터리 용량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Ford 향 배터리 탑재 추이: CATL 비중 증가



자료: SNE 리서치,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분기별 부문 영업이익

	EBIT ($B)					
	Q2 2024	Q3 2024	Q4 2024	Q1 2025	Q2 2025	Q3 2025
Ford Blue	$ 1.2	$ 1.6	$ 1.6	$ 0.1	$ 0.7	$ 1.5
Ford Model e	(1.1)	(1.2)	(1.4)	(0.8)	(1.3)	(1.4)
Ford Pro	2.6	1.8	1.6	1.3	2.3	2.0
Ford Credit*	0.3	0.5	0.4	0.6	0.6	0.6
Corporate Other	(0.2)	(0.2)	(0.1)	(0.1)	(0.2)	(0.2)
Total Company (Adjusted)	$ 2.8	$ 2.6	$ 2.1	$ 1.0	$ 2.1	$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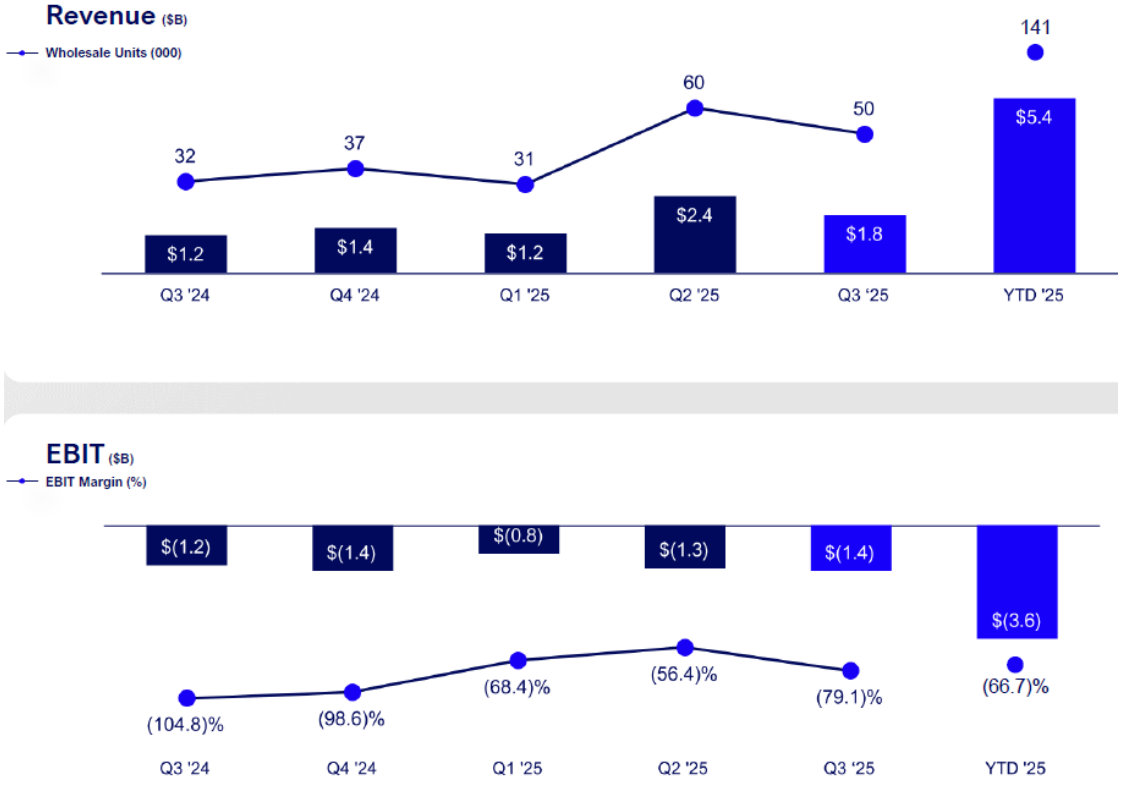
자료: 회사,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분기별 부문 영업이익율

	EBIT Margin (%)					
	Q2 2024	Q3 2024	Q4 2024	Q1 2025	Q2 2025	Q3 2025
Ford Blue	4.4 %	6.2 %	5.8 %	0.5 %	2.6 %	5.5 %
Ford Model e	(99.9)	(104.8)	(98.6)	(68.4)	(56.4)	(79.1)
Ford Pro	15.1	11.6	10.0	8.6	12.3	11.4
Total Company	5.8 %	5.5 %	4.4 %	2.5 %	4.3 %	5.1 %

자료: 회사,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분기별 Ford Model e 부문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이



자료: 회사, LS증권 리서치센터

표1 **Ford EV 전략 변화 세부 내용 정리**

	기존('19~'23년 초)	현재('23년 중반~현재)
EV 전략 목표	- 혁신적 상징 모델을 통한 공격적 진입	- 수익성 및 속도 조절
사업구조	- Model e 사업부를 신설하여 ICE(내역기관)부문과 분리 - 막대한 자본과 인력 투입(500억 달러 이상)	- Model e는 유지하되, 투자 속도 조절 및 비용 절감에 집중 - 인력의 일부 수익성이 높은 ICE 및 Hybrid부문으로 재배치
생산목표	- '26년까지 글로벌 EV 생산량 200만대 달성이라는 공격적인 목표 제시	- 단기 생산목표를 대폭 하향 조정 - F-150 라이트닝 등 주요 EV 모델의 생산을 일시 중단하거나 감축(라이트닝 생산량 절반 수준으로 축소)
신차 개발	- 대형/프리미엄 EV 중심 - 머스탱 마하-E, F-150 라이트닝 등 브랜드 상징 모델의 EV 버전 출시	- 저가형, 보급형 EV 개발로 전략 수정 - 'EV 시대의 Model T'를 목표로 $30,000 수준의 저가형 EV 플랫폼에 $70억불 이상 자본 투자
파워트레인	- 순수 EV(Battery EV)로의 빠른 전환 강조 - 하이브리드는 과도기적 기술로 취급	- 하이브리드(HEV) 라인업 대폭 강화 - F-150 등 주요 모델에 하이브리드 파워부스트 모델 생산 및 판매 집중
재무 성과	- EV 사업부의 초기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빠른 시장 점유율 확보가 목표	- 수익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설정 - Model e의 연간 예상 손실 폭을 오히려 확대하며 향후 몇 년간은 EV 내에서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함을 인정

자료: 회사, 언론 기사,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정경희).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 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 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15% 이상 기대 -15% ~ +15% -15% 이하 기대	89.4% 10.6%	2018 년 10 월 25 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15%로 변경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4. 10. 01 ~ 2025. 09.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 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